

# 전기차, 구입부터 충전·매각까지 챙긴다

현대차 고객 케어 프로그램 '벨리브' 운영  
기아차 윈스톱 서비스 '스위치 온' 출시  
차업체, 전기차 시장 점유율 높이기 경쟁

자동차업체가 전기차 구매 전용 프로그램을 잇달아 출시하는 등 전기차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서는 정부 기조에 따라 전기차 구매부터 충전, 중고차 매각까지 종합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까지 선보이는 등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구매 고객을 위한 종합 케어 프로그램 '벨리브' (beliEve)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전기차 구매고객 종합 케어 프로그램 '벨리브'는 전기차 구매시 가장 중요한 고려 조건인 '품질, 충전, 경제성'에 대한 다양한 고객 혜택을 종합해 운전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기차를 구매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우선 현대차는 아이오닉 일렉트릭, 코나 일렉트릭, 포터 II 일렉트릭 등에 '고전압 배터리 보증 서비스'를 적용한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신차로 구매하는 개인 고객은 배터리 평생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2020 코나 일렉트릭은 10년/20만km의 배터리 무상 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 구동모터, 감속기, 완속충전기 등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용 부품에 대한 무상 보증 서비스와 전기차를 구매할 블루멤버스 정회원에게 연 1회(최대 8년) 차량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검도 지원한다.

특히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 일렉트릭 개인·개인사업자 출고 고객 중 전용 할부·카드·임대 프로모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용 충전기 무상지원(설치비 별도)'이나 '전기차 충전카드(30만 포인트)' 중 원하는 혜택을



현대차가 전기차 구매 고객을 위한 종합 케어 프로그램 '벨리브(beliEve)'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내 주요 완성차업체가 전기차 구매 고객을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전기차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제공>

제공해 충전비 부담을 덜어주는 '충전비 지원 금융 프로그램'도 이달부터 운영키로 했다.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차 중고차 가격 보장 프로그램'을 도입해 아이오닉 일렉트릭, 코나 일렉트릭의 개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신차 구매 후 2년 초과 3년 이하 기간 내 매각하면 현대차 신차 재구매시 기존 보유차량의 잔존가치를 보장해준다.

연평균 주행거리 1만5000km 미만시 차량 판매가격의 최대 55%를 보장하는 등 전기차 중고차 시세 대비 높은 보장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전용 리스·렌트 프로그램'도 있어 아이오닉 일렉트릭, 코나 일렉트릭을 월 17~29만원대로 임대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에 앞서 기아자동차는 지난달 국내 최초로 전기차 전용 구매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경쟁에 불을 지폈다.

기아차는 구매부터 차량 충전, 중고차 매각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구매 프로그램 '스위치 온(Switch On)'을 선보이며 기아차 니로EV와 쏘울 부스터EV를 출고하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저금리 할부 ▲충전비 지원 ▲중고차 가격 보장 등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 바 있다.

이처럼 현대·기아차가 앞다퉈 구매에서 충전, 중고차 가격 보장까지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출시하면서 추후 자동차업체에서 전기차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용 프로그램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벤츠 E-클래스 세단·GLC 보험료 인하 기대

보험개발원, 차량 등급 상승

인 중형 SUV GLC와 GLC 쿠페도 전년 대비 2단계 오른 16등급으로 책정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보험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차량모델등급 평가 결과에서 10세대 E-클래스 세단과 쿠페, 카브리올레 라인업과 GLC·GLC 쿠페 차량모델 등급이 상승했다고 9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의 차량모델등급 평가는 차량모델별 충돌사고 손상 정도와 수리 용이성,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 등급을 책정하는 제도다.

1등급부터 26등급으로 평가되고, 1개 등급 상승에 따라 약 5%에서 10%까지 자동차보험료가 감소한다.

2016년 국내 출시된 10세대 E-클래스 세단, 쿠페, 카브리올레 라인업은 전년 대비 2개 등급 오른 15등급으로 상향 평가됐다. 2016년, 2017년 각각 국내에 선보

10세대 E클래스 라인업의 경우, 2016년 충돌테스트를 실시해 차량모델등급이 책정된 이후 지난 4년간 꾸준히 향상돼 4개 등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차량모델등급이 상승하면서 E-클래스의 다양한 라인업과 GLC 및 GLC 쿠페 약 15만대(KAIDA 등록 기준)의 자동차보험료가 낮아져 합리적인 비용으로 차량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향된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은 지난 1월부터 일괄 적용되며, 조정된 자동차보험료는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한 손해보험사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제네시스 'GV80' 가솔린 모델 출시

2.5 터보, 3.5 터보 엔진 첫 적용

3.5 터보 모델(5인승, 2WD, 20인치 타이어 기준)은 최고 출력 380마력(PS), 최대토크 54.0kgf·m 등 등급 최고 수준의 동력 성능을 갖췄으며 복합 연비는 8.6km/l이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럭셔리 플래그십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80'의 가솔린 모델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제네시스는 GV80 가솔린 모델에 신규 2.5 터보, 3.5 터보 엔진을 최초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제네시스는 GV80을 3.0 디젤 모델과 함께 3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운영한다.

가솔린 모델의 판매 가격은 개별소비세 1.5% 기준으로 2.5 터보 6037만원, 3.5 터보 6587만원부터 시작된다.

제네시스는 GV80 가솔린 모델의 후면부에 전면부 크레스트 그릴 형상과 디자인 통일감을 준 범퍼 일체형 듀얼 머플러를 적용해 섬세한 고급감을 표현해냈다고 설명했다.

2.5 터보 모델(5인승, 2WD, 19인치 타이어 기준) 최고 출력 304마력(PS), 최대토크 43.0kgf·m 등 역동적인 동력 성능을 갖췄으며 복합 연비는 9.7km/l이다.

특히 GV80 가솔린 모델에 탑재된 2.5 터보, 3.5 터보 엔진은 ▲듀얼 퓨얼 인젝션(Dual Fuel Injection) 시스템 ▲수냉식 인터쿨러(Water Cooled Type Inter Cooler) 등으로 연비 효율과 응답 성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2.5 터보 엔진에는 냉각수 흐름 및 온도를 제어하는 '가변 분리 냉각 시스템'이 적용됐다. 3.5 터보 엔진에는 실린더 정중앙 부위에서 연료를 분사해 연소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연비를 개선하는 '센터 인젝션' (Center Injection) 등이 적용됐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2.5 터보, 3.5 터보 등 가솔린 모델의 추가로 GV80의 엔진 라인업이 완성됐다"며 "앞으로도 제네시스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기아차, K9 셀렉션 구매 프로그램 '프리미엄 릴렉스' 출시

기본 3% 할인에 할부기간 금리 혜택

36개월 무상 A/S 서비스 제공도

기아자동차(주)는 특별 금리 혜택과 고급 안마의자 구독 서비스를 결합한 K9 셀렉션 구매 프로그램 '프리미엄 릴렉스'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프리미엄 릴렉스'는 2020년 트렌드 키워드로 꼽히고 있는 '스트리밍 라이프' (Streaming Life)에 착안해 기아차가 새롭게 선보이는 구독형 구매 프로그램이다.

기아차는 플래그십 세단인 K9과 휴식과 영감을 지향하는 휴테크(Hutech) 고급 안마의자의 프리미엄 이미지가 부합한다고 판단해 이번 구매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우선 '프리미엄 릴렉스' 이용 고객은 기본조건 3% 할인은 물론, 총 36개월 할부기간 1.0%의 특별 금리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할부금 납입 기간 동안 헬스케어 전문기업

휴테크의 최고급 안마의자 'KAI S7 브론즈 골드'를 무료로 구독할 수 있으며, K9 고객만을 위해 특별히 제공되는 36개월 무상 A/S 서비스를 받게 된다. 여기에 36개월 이후 9만9000원을 납입하면 소유권 이전까지 받을 수 있다.

서비스 혜택은 3월 한달 간 전국의 기아차 전시장에서 현대카드 M계열 카드로 10% 이상의 선수금을 전액 결제하고, 현대캐피탈을 이용해 K9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적용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가치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아차는 지난 달 스텔라 전용 구독형 구매 프로그램 '옴 셀렉션'을 출시하는 등 '스트리밍 라이프'에 착안한 차별화된 구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고객 혜택 강화에 나서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조선의 신작 시집

# 꽃, 향기의 밀서

본시 땅위에 길이 없어 가는 사람에게만 길이 된다. 꽃도 풀이었다가 꽃으로 보는 사람에게만 꽃이 된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꽃의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고 내통해야만 꽃의 생애가 보이고 향기의 밀서도 받게 되는 것이다. 빛으로 오롯이 쌓아올린 철학적 침묵의 결박을 풀고 물마루를 건너와 이야기하는 물옥잠의 향기로 밀어 귀를 기울인다. 꽃의 속삭임에는 애처로운 누이의 생애와 어머니의 새가탈개 애간장 타는 속울음이 있다. 꽃마다 대지의 조근조근한 숨결을 건너온 계절이 있다.

- 김광희 시인

조선의 시인은 꽃의 시인이다. 일찍이 김춘수 시인이 무의미한 사물을 호명해 '꽃'으로 상징되는 존재론적 의미를 부여했다면, 조선의 시인은 우리의 인식망에서 멀리 있던 실제 꽃들을 찬찬히 불러들여 고유의 향기를 부여했다. 꽃은 향기로 숨 쉰다. 그래서 꽃은 향기로 실존한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의 시인의 꽃시는 꽃을 잃은 우리 시단의 꽃심이요, 향기 잃은 세상의 꽃씨다. 시인의 시집을 읽노라면 마치 시인이 테리고 나온 꽃들과의 나들이에 초대받은 기분이다. 향기 풀풀 나는 초대연에 한껏 취하고 만다.

- 김원수 시인

조선의 프로필

농민신문신춘문에 당선  
김만중문학상  
신석정초물문학상  
현. 서은 문병란 문학연구소 초빙교수

기독신문에 당선  
거제문학상  
안정복문학대상 등 수상

조선의 시집

「당신 반칙이야,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어쩌면 쓰러린 날은 꽃피는 동안이다,  
「돌이라는 새,  
시인 조선의